

국제관광 저해요인으로서의 테러리즘과 정책적 제약요소에 관한 위험성 평가*

Risk Evaluation of Impeding Facts for International Tourism Focused
on Terrorism and Policy Limit

변우희**

Byun, Woo-Hee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to evaluate optimal market mixes to minimize the instability of international tourist market demand. An empirical analysis was applied to inbound tourists to Korean. Korea can play a role as one of important tourist destinations. The conclusion shed light on diversification in international tourism market and offer tourism authorities and policy-makers useful direction for risk evaluation in the tourist destination planning process. Therefore, using rational portfolio mixes with various return-risk options can facilitate a more stable pattern of arrivals from foreign continents. To achieve the rational international tourism market mixes, the tourism concerned party should take the high-return & high-risk option and shift available resources to five continents. More policy implications are provided to direct tourism authorities and policy makers.

핵심용어(Key words) : 국제관광시장(International tourist market),
포트폴리오 믹스(Portfolio mixes), 테러리즘(Terrorism),
위험성평가와 관리(Risk evaluation and management)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327-B00802).

** 경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e-mail: byunwh2000@paran.com
(관심분야: 관광데이터 분석, 관광경영분석, 국제관광학)

I. 서 론

신자유주의에 따르는 세계경제성장에 있어서 국제관광의 전략적 역할과 발전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강태구, 2003; Alana, 2005). 그것은 국제관광이 국가발전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핵심역할을 할 뿐 아니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종교와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고 정치적 화해 무드를 조성하는 평화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문화관광부, 2007; 김사현, 2006; Kravis, Kenessey, Hestion & Summers, 1982).

그러나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신자유주의의 양면성으로 인해 국제통상측면에서의 경제적 갈등과 이라크 사태 등 또 다른 양상의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면서 지역 블록화, 국지적 이해관계 증대 및 국가 간 양극화 현상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어윤대 외, 2004; Philemon, 2006). 이러한 시대적 영향과 정치적 환경에 의해 극단적 형태의 테러리즘이나 정책적 제약요소 등으로 인해 국제관광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위험요인들도 속속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세부적인 저해요인들이 사전에 분석되고 요인 별 위험성평가에 의하여 구체적 지표가 산출된 후, 그에 따른 적절한 위험요인들이 제대로 관리만 된다면, 오히려 해당국가의 국제관광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국제관광 저해요인들의 내재된 속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상대적 위험성 정도에 따른 실행 비교지표를 산출하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단편적인 국제관광학연구 차원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각에서의 단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매우 정교하며 어려운 평가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김도영, 2006; Crouch, 1996). 또한 반드시 계량적인 분석과 평가 작업을 통하여 국제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사결정의 대응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인바운드 관광의 저해요인 가운데에 테러리즘 및 정책적 제약요소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는 본 과제는, 파생되는 위험을 최소화시켜 평가변수들을 다각도로 통제된 상태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우구성에 의한 정책의사결정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Huang, 2002). 그러나 한국의 국제관광 현실은 환율과 양극화 등 세계적인 경제추이로 인해 대부분의 여행사와 관광업체들이 아웃바운드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북한 핵이나 환율 등 심리적 요인과 테

러리즘이나 정책적 제약요소들에 의해 구조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 인바운드는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최승국·오수경, 2004; 김병문·김현지, 2002). 이러한 문제의 해법을 찾는 과정이 한국관광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확실한 국제관광의 방향성 정립을 위하여 실증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이유이며 본 연구를 시작한 동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상에서 제기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향후 한국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관광기업의 수요와 공급차원에서의 국제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단계적인 접근을 통한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첫째, 본 연구에 제시된 한국의 국제관광에서 파생되는 저해요인의 위험성평가와 같은 의사결정분석연구는 매우 정교한 분석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특히 뉴욕 사태 등 테러리즘이나 사스 등 비예기 변수들의 출현으로 발생하는 정책적 제약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적용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다면적 차원에서 위험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평가결과의 유용성과 방법론적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게 될 것이다.

둘째, 국제관광의 관점을 대륙별 인바운드 관광객 분석을 중심으로 평가대상변수인 국제관광수지, 관광객출입통계치의 변이에 따른 분포와 위험정도를 평가하여 대륙별 최적의 조합구성에 의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Crouch, 1992; Pflug, 2000). 이것은 저해요인을 최적화 시킨 상태에서 구조적으로 문제를 제거한 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특히 본 연구는 계량분석모형을 통해 저해요인분석과 다양한 측도에 의한 위험성평가 및 최적의 포트폴리오믹스의 구성을 통한 위험관리와 같은 단계적인 연구방법과 분석절차를 거쳐 최적의 관광정책 의사결정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목적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한국의 국제관광 현장에 수월히 적용될 경우, 각 대륙별 예상되는 저해요인들의 위험성이 직접관리 될 것이며 그 실용성이 인정될 것이다. 이러한 과학적 실용성에 힘입어 향후 보다 정밀하고 미시적인 위험성 측정, 평가 및 응용연구가 가능해지며 각 대륙 표적시장별 구체적인 대응전략도 아울러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유용성은 한국 관광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저해요인들의 위험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지표로서 새로운 국제관광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문적·실무적 토대를 구축하는데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II. 선행이론 고찰

1. 국제관광 저해요인

관광산업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교류가 빈번해지고 국제관광시장의 상호의존성 증가로 인해 국제관광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 들이 증가하고 그 정도와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Kim & Moosa, 2005). 실제로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에 있었던 오일쇼크의 영향과 국내외 정세불안, 1990년대 초에는 걸프전과 한·대만 국교단절 등의 저해요인에 의해 인바운드가 상당히 위축되었다. 더욱이 IMF구제 금융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경기침체가 시작된 1998년의 경우에는 일반여행업체의 내국인 관광객 해외송출 인원의 감소와 관광호텔 객실점유율이 감소하면서 여행사, 항공사 호텔 등과 관광기업의 도산 및 경영이 악화되어 아웃바운드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조민호, 2000; 변우희, 2008). 더욱이 최근에는 이라크 전쟁, 9. 11 사태, 텔레반 납치사건 등의 직접적인 테러 뿐 아니라 사스, 조류독감 등 유사 테러리즘들이 세계도처에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1차적 저해요인으로 제시된 테러리즘은 뉴욕 9. 11사태에 보듯이 세계적으로 국제관광을 가장 위협하는 저해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06, 노예석 외), 한국의 경우도 테러리즘이 국제관광 활성화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각 세부 국가의 평가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제약요소들이 대륙별 상이한 국제관광환경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대응 평가변수선정 및 측정과정이 병행시행 되는 것이 위험 관리를 위한 선행조건이다. 따라서 산출된 자료들은 국제관광 활동의 정책적 제약요소 가운데에 환율, 양극화, 통관절차, 잦은 항공사고 등의 공통적인 영향도 평가에도 직접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비자정책지원미비, 수출영세율, 관광매력부재, 국제 홍보부재 등 인바운드 관련 저해요인 영향도 평가 변수들이 상황에 따라 다각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아웃바운드의 저가상품, 정보시스템 부재, 소득저하 등의 제약요소들도 적절히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평가대상변수의 경우도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 국제수지나 관광객동향지수를 파악하여 각 영향도 평가변수 통제에 의한 국가별로 차별화 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각 대륙을 통제된 상태에서 해당 영향도 평가변수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들도 과학적으로 관리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2. 위험성측도와 평가

국제관광은 통상 관광이라는 이동현상을 통해 국가 간의 인적, 물적인 상호 교환이라는 관광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의사결정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이장춘, 2004). 그러나 실제적인 최종목표는 산업경제적인 차원에서 최적의 합리적 구성을 통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관광기대수익을 확보하는 것이다(Kurendran & King, 1997). 따라서 국제관광 현상은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예상치 못하는 불확실성 하에서 테러리즘이나 정책적인 제약요소 등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공공성의 특성을 가진 국제관광정책의 경우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한 막대한 예산 투자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관광수지나 관광객동향지수 등 국제관광의 평가대상변수들의 실제흐름이 국제관광 저해요인인 영향도 평가지수에 의해 어느 정도 기대치에 벗어나고 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불확실성 하의 위험성을 다양한 측도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인바운드·아웃바운드의 국제관광 활동에서의 위험성 정의는 당초 국가의 관광정책이나 개발계획의 목표에 벗어날 가능성이 있고(안중윤, 1997; 변우희, 2006), 측정 가능한 불확실성(measurable uncertainty)이라는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으며, 국제관광정책의사결정에서 발생하는 기대지수인 평가대상변수들의 변동성을 의미한다(Barber & John, 1997). 위험성평가의 세부적인 분석으로는 앞서 제기한 국제관광의 구조적 저해요인에 대한 외생적 평가변수 즉, 영향도 평가변수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대상 변수들의 안정성 분석을 실시한다. 이어서 국제관광 이동현상에서 발생하는 비 예기변수의 진단과 추가적인 평가영향 변수인 2차적인 관련 자료를 통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위험성 측정과 평가에 관한 방법론들은 위험을 측정하는 측도(measure)와 모형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위험 측정 평가모형의 가정에 관한 논의는 평가대상에 적절한 평가모형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제관광 위험성측정에 적용되는 확률측도(probability measure), 신뢰 측도(belief measure) 및 개연성 측도(plausibility measure)에 의한 방법의 강, 약점을 파악하여 자료의 특성에 맞는 방법론을 적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확률측도는 미래 기대치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분산도를 표준편차와 분산의 통계치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다(Crouch, 1996; Artzner, Delbaen, Elber & Heath, 1997). 또한 위험이 발생하는 원천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일정한 수준이하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위험으

로 정의한 후 이와 관련된 위험측정지표를 개발하는 확률측도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김기태, 2005; Markowitz, 1952). 그러나 이러한 확률측도가 위험성평가에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확률측도 자체가 가지는 한계가 있어(Buckley, 2002), 이를 보완한 신뢰측도와 개연성 측도를 이용한 측정을 할 수도 있다(Ballester, 2000). 신뢰측도의 경우 확률측도에 비해 국제관광의 위험성을 보다 보수적으로 측정하는 도구이며 개연성 측도는 신뢰측도나 확률측도에 비해 관광의 위험성을 보다 공격적으로 측정하는 도구이다. 따라서 평가대상변수의 위험성평가에 따른 상대적인 안전성지표를 산출한 후, 확률측도와 더불어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는 신뢰측도와 개연성측도를 효율적으로 적용함으로써(변우희, 1998), 국제관광에서 파생하는 저해요인들의 위험성을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다.

3. 위험관리 평가모형

한국의 관광이 국제화, 개방화로 가속화 되면서 관광의 역할이 국제수지적자의 주범이 아니라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가기 위한 성장 동력이자 우리 경제의 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해요인의 영향도 평가변수와 평가대상변수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국제관광 저해요인에 대한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매우 주요한 작업이다. 위험관리의 정책적 의의는 위험요인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국가별로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거시경제 차원에서의 관광정책수립에 유용한 자료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관광 분야의 위험관리를 위한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과 적정 평가모형의 적용이 필요하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형으로서 평균-분산모형을 들 수 있다. 이모형은 1980년대부터 지난 20년 동안 증가된 환위험, 이자율 위험, 상품가격 위험 등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 관광분야 연구에도 적용 가능한 실행모형이다. 또한 국제관광위험에 노출된 특정 국가에 집중하지 않고 다수의 국가에 분산하여 위험을 관리하고 평가변수들을 특성별로 체계화 시킬 수 있어(Statman, 1987), 평균과 분산에 의한 세부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특히 관광연구 분야에서도 케네디(Kennedy, 1996)는 아일랜드의 국제관광산업의 위험을 확률측도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아일랜드 국제관광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바운드 비율을 평균-분산모형인 포트폴리오 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가 있

다. 이 연구 역시 인바운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위험관리 평가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응용연구의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균-분산 모형은 정규성이라는 가정을 충족시켜야 하는 제약조건이 있다. 만약 이러한 가정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자료를 왜곡되게 해석함으로써 평균-분산모형을 이용한 최적 포트폴리오구성이 제한을 받는 비현실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또한 자료의 정규성가정이 어려울 경우 확률적 지배모형을 이용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확률적 지배모형의 특징은 만약 1차 지배모형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2차 지배모형의 적용이 가능하며 (Aboudi & Thon, 1995), 개별적 영향도 평가변수간의 2차 확률적 지배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각 개별 영향도 평가변수 간에 3차 확률적 지배관계를 분석할 수 있어 국제관광의 최적포트폴리오 전략구성에 매우 적합한 방법론이다(Ekern, 1981). 또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모형으로 위험-수익의 상충관계모형(risk-return trade-off model)을 들 수 있다(Embrechts, Resuick & Samoroduitsky, 1999). 이모형은 국제관광의 기대수익에 해당하는 국제수지개선이나 관광객 수의 증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위험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저해요인들의 적정 위험수준을 설정하고, 선택한 위험에서 최대의 기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적정평가모형으로는 시스템으로 접근한 바(VaR: Value-at-Risk)모형을 들 수 있다. 바(VaR)모형은 관광기업차원에서 국제관광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즉, 시물레이션을 이용한 신뢰구간 내에 발생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가치의 최대손실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모형이다(Pflug, 2000).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렇게 계량화 된 선행모형을 적용하여 최대손실규모를 분석하여 포트폴리오의 위험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정책적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업이며 이를 바탕으로 위험에 대한 헤지(hedge)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관광수지 등의 평가대상변수 들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어 국가별로 그만큼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데이터 수집 및 영향도 변수

한국의 국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준지표는 한국관광공사,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인바운드 관광객의 통계치를 분석대상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향후 한국 인바운드의 총량적 지표가 시간적인 변화에 따라 더욱 세분화되고 구체화 될 것으로 예견되나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집적된 시계열자료를 일차적인 분석자료로 투입하였다. 특히 모집단의 예측을 위한 표본통계치의 활용이라는 차원에서는 연구 자료의 정규화는 기본적인 분석의 전제가 되어야 함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처치하였다. 자료의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방문한 아시아를 비롯한 주로 6개 대륙의 최근 14년간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이 실행되었으며, 각 대륙별 일반적인 특성 분석 및 거시적인 정책방향도 아울러 검토하였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는 분석의 최종단계인 대륙별 최적의 포트폴리오 믹스구성을 통하여 대륙별 각각의 국제관광 정책의사결정 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특히 중요한 논점은 국제관광의 저해요인으로서의 테러리즘과 정책적 제약요소들에 의한 변이를 추적하여 6개 대륙의 방한 인바운드 통계치를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해요인의 영향도 평가변수인 테러리즘과 정책적 제약요소 들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과 과학적인 입증을 위하여서는 해당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을 위한 기준지표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연구의 범주와 시점 등 계량적분석이 가능한 요소별 영향도 평가변수들을 선정하고 측정변수의 단면적인 평가도 병행 시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에서의 테러리즘 경우처럼 서해교전, 북한 핵, 대포동 미사일 발사 등, 직접적인 테러가 아닌 심리적인 간접 테러요소들도 인바운드에 직접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함으로 측정 가능한 영향도 평가변수로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현상적으로 테러리즘의 돌발시점이 다양한 영향평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Jang & Chen, 2008)를 살펴보면, 세부적인 국가별 대응지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국제관광 정책의사결정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같은 관점에서 정책적 제약요소들의 영향변수도 국가마다 상이한 국제관광환경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평가변수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다. 즉, 국제관광 활동의 정책적 제약요소 가운데에 환율, 양극화, 통관절차, 잦은 항공사고 등의 공통적인 영향도 평가변수와 비자정책지원미비, 수출영세율, 관광매력부재, 국제 홍보부재 등 인바

운드 관련 저해요인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으며, 영향도 평가변수들도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어떠한 측면에서는 민감도가 예민하게 작용됨으로써 현재의 시계열 데이터로는 다소 무리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개별국가가 아닌 대륙별 테러리즘과 정책적 제약요소를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9·11사태와 아시아 금융위기 및 사스 변수 등의 극단적인 영향 변수들을 중점적으로 추적, 감지하였다. 이는 곧, 세부평가변수의 선행연구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후속연구의 방향성지표로서 그 가치성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서론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위험평가와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각 대륙별 최적의 인바운드 관광시장 믹스를 구성하는 것이다. 선행이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위험성척도, 평균-분산 모형 및 포트폴리오를 적용시켜 평가절차에 의한 단계별 분석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조사 분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주식시장의 이론적 토대를 관광분야에 응용하는 연구방법론적인 방향성을 잡고 재무적 포트폴리오 이론을 준용하였다. 특히 위험성평가는 주식시장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각 대륙별 인바운드 시장도 서로 다른 수준의 수익률과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입국자수와 분산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 분석의 흐름은 평면적인 일차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최적의 인바운드 믹스의 구성은 최종단계인 위험관리의 평가과정으로서 과학적인 분석법과 논리적인 의미해석에 중점을 두고 국제 관광정책의 의사결정모형을 정립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1단계 절차로는 수익성지표인 각 대륙별 인바운드 시장자료를 기초로 하여 각 대륙별 수익률을 분석하였다. 이것은 인바운드 시장수익률이 각 대륙별 인바운드 입국자 수의 증가율 또는 관광객 소비지출 증가율로 측정가능하며 그 분석방법은 (식 1)에 의해 산출된다.

$$B(R_p) = \sum_{i=1}^n A_i \cdot B(r_i) \quad (\text{식 1})$$

(식 1)에서 $B(R_p)$ 은 특정 대륙의 인바운드 시장의 기대수익률(입국자 수 증가율, 소비지출 증가율)을 의미하며, A_i 는 특정 대륙의 인바운드 시장 포트폴리오에서 개별 대륙의 인바운드 시장 i 의 구성비율 즉, 가중치를 나타낸다. $B(R_i)$ 는

개별 대륙의 인바운드 시장 i 의 수익률(입국자 수, 평균 지출액)을 나타내는 것이다. 데이터의 분포는 정규성을 가정한 확률분포를 나타냄으로써 측정이 가능하다.

분석의 2단계에서는 (식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1단계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표준편차(σ_p), 분산(σ_p^2), 공분산(σ_{ij}), 상관계수(ρ_{ij})를 이용하여 대륙별 인바운드 시장의 위험성을 평가하였다. 이것은 전체 인바운드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확률분포에서 평가계수를 산정하게 되었다. 즉, 인바운드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입국자 수, 관광객 소비지출)에서의 변동가능성으로 위험성지표를 산출하게 된 것이다.

$$\begin{aligned} \sigma_p^2 &= \text{Var}(R_p) = \sum_{i=1}^n \sum_{j=1}^n A_i A_j \rho_{ij} \sigma_i \sigma_j \left(\because \rho_{ij} = \frac{\sigma_{ij}}{\sigma_i \sigma_j} \right) \\ &= \sum_{i=1}^n A_i^2 \sigma_i^2 + \sum_{i=1}^n \sum_{j=1, j \neq i}^n A_i A_j \rho_{ij} \sigma_i \sigma_j \quad (-1 \leq \rho_{ij} \leq 1) \\ \sigma_p &= \sqrt{\text{Var}(R_p)} = \sqrt{\sum_{i=1}^n \sum_{j=1}^n A_i A_j \rho_{ij} \sigma_i \sigma_j} \\ &= \sqrt{\sum_{i=1}^n A_i^2 \sigma_i^2 + \sum_{i=1}^n \sum_{j=1, j \neq i}^n A_i A_j \rho_{ij} \sigma_i \sigma_j} \quad (\text{식 2}) \end{aligned}$$

연구의 최종 단계인 3단계에서는 1, 2단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국가의 국제관광정책의 위험관리측면에서 최적의 인바운드 시장 포트폴리오 믹스를 구성하는 분석절차이다. (식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위험을 통제된 상태에서 수익률을 최대화 하는 믹스를 구성하여 인바운드 위험을 관리하였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수익을 통제된 상태에서 위험을 최소화 한 결과 값과 동일한 최종결론을 유도할 수 있어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별 무리 없이 실행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관리과정에서 대륙별 인바운드 관광시장을 토대로 가능한 모든 효율적 투자선의 도출을 위해서는 (식 3)의 2차함수로 표현되는 목적함수의 최적 해를 통한 산출과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begin{aligned} \sum_{i=1}^n A_i &= 1, \quad \sigma_p = \sum_{i=1}^n A_i^2 \sigma_i^2 + \sum_{i=1}^n \sum_{j=1, j \neq i}^n A_i A_j \sigma_{ij} \\ A_i &\leq P_{1i}, \quad i = 1, \dots, n \quad \text{이고} \quad A_i \leq P_{2i}, \quad i = 1, \dots, n \quad (\text{식 3}) \end{aligned}$$

$$\text{Max} \sum_{i=1}^n A_i B(c_i) = B(c_p) \quad (\text{식 4})$$

이러한 1.2 단계의 분석절차를 거쳐 최종 3단계에 산출된 결과 값은 대륙별로 영향도 평가변수에 의한 변동 상태 파악과 동시에 위험관리과정인 최적의 구성 비율에 의한 의사결정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으로서 과학적 논리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인바운드 수익성지표를 통한 단계별 분석절차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국제관광 저해요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과학적이고 계량적인 분석절차에 의해 지속적인 위험관리의 순환과정(feed back)으로서의 논리적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험관리는 사전에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조기경보시스템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선행모델로서 정부, 학계 및 관련기업에 직접응용 가능한 선행연구로서의 실용적 가치가 있다는 점도 중시해야 할 것이다.

IV. 분석 및 결과해석

1. 대륙별 국제관광 수익성지표 분석

본 연구의 분석과정은 재무관리 포트폴리오 이론을 국제관광 전략이론에 적용시킨 학제적 연구라는 관점에서 대륙별 인바운드 입국자 수를 수익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1단계 분석에서는 <표 1>에서는 6개의 각 대륙별 인바운드 입국자 수를 1995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의 현황을 제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표 2>에서는 수익률 즉, 입국자 수의 증가율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연구방법론에 제시한 <식 1>의 공식에 기초하여 산출한 결과이며 수익률의 변화는 테러리즘이나 관광정책 제약요소 등의 평가변수에 영향을 받고 있어 위험관리의 측정지표 산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14년간 총체적인 대륙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아시아(76.43%), 중동(0.77%), 아메리카(11.43%), 유럽(9.62%), 오세아니아(1.38%), 아프리카(0.37%)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비율인 아프리카의 경우도 1995년에 12,894명에서 2008년 현재 26,209명으로 약 104%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오세아니아, 중동 등 낮은 구성비의 대륙들에 대한 인바운드 발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표 1〉 대륙별 국제관광객 입국자 수(인바운드)

(단위: 명, %)

연도	대륙	아시아	중동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총계
1995		2,524,106 (73.86)	20,460 (0.60)	417,027 (12.20)	407,411 (11.92)	35,641 (1.04)	12,894 (0.38)	3,753,197 (100)
1996		2,418,443 (71.52)	23,297 (0.69)	464,509 (13.74)	423,346 (12.52)	39,940 (1.18)	11,878 (0.35)	3,683,779 (100)
1997		2,609,990 (72.48)	27,396 (0.76)	493,940 (13.72)	410,761 (11.41)	45,093 (1.25)	13,915 (0.39)	3,908,140 (100)
1998		3,003,706 (76.31)	25,624 (0.65)	471,317 (11.97)	378,612 (9.62)	41,099 (1.04)	15,863 (0.40)	4,250,216 (100)
1999		3,418,930 (78.44)	27,247 (0.63)	463,937 (10.64)	385,511 (8.84)	44,464 (1.02)	18,669 (0.43)	4,659,785 (100)
2000		3,949,161 (78.29)	35,727 (0.71)	534,519 (10.60)	452,478 (8.97)	54,067 (1.07)	18,317 (0.36)	5,321,792 (100)
2001		3,815,557 (78.50)	31,607 (0.65)	506,787 (10.43)	428,821 (8.82)	59,682 (1.23)	18,165 (0.37)	5,147,204 (100)
2002		3,845,917 (76.45)	38,509 (0.77)	556,440 (11.06)	503,518 (10.01)	66,973 (1.33)	19,577 (0.39)	5,347,468 (100)
2003		3,353,598 (75.16)	39,075 (0.88)	504,956 (11.32)	481,069 (10.78)	65,717 (1.47)	17,719 (0.40)	4,752,762 (100)
2004		4,273,360 (77.47)	38,153 (0.69)	610,562 (11.07)	498,096 (9.03)	77,921 (1.41)	17,905 (0.32)	5,818,138 (100)
2005		4,489,930 (77.56)	46,713 (0.81)	640,050 (11.06)	508,859 (8.79)	85,200 (1.47)	18,165 (0.31)	6,022,752 (100)
2006		4,607,703 (77.03)	53,338 (0.89)	673,119 (11.25)	534,834 (8.94)	91,516 (1.53)	21,090 (0.35)	6,155,047 (100)
2007		4,746,840 (76.34)	63,609 (1.02)	716,336 (11.52)	559,432 (9.00)	107,829 (1.73)	23,624 (0.38)	6,448,240 (100)
2008		5,092,437 (76.70)	56,053 (0.84)	744,615 (11.22)	592,303 (8.92)	127,569 (1.92)	26,209 (0.39)	6,890,841 (100)
총계		52,149,678 (76.43)	526,808 (0.77)	7,798,114 (11.43)	6,565,051 (9.62)	942,711 (1.38)	253,990 (0.37)	68,236,352 (100)

특히 〈표 2〉에서의 관광시장 수익률의 변이현상에서 2001년의 경우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전 대륙의 수익률(-3.641%)이 감소하였다. 이것은 뉴욕에서 발생한 9. 11테러 변수의 발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2003년에도 수익률(-11.30%)이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동남아 전 지역을 휩쓴 SARS 변수의 발생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이한 점은 IMF 금융위기를 겪었던 1998년에는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대륙이 수익률 감소를 이루고 있는 데에 반해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이 오히려 9.036%로 증가하는 현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인 평균 증가율(μ)에서는 아시아(6.014%)가 전체평균(5.568%)을 상회하고 있으나, 오세아니아 대륙(10.61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중동(8.912%)이 2위를 기록하였다.

〈표 2〉 대륙별 국제 관광시장 수익률(인바운드)

(단위: %)

대륙 연도	아시아	중동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총계
1996	-4.186	13.866	11.386	3.911	12.062	-7.880	-1.057
1997	7.920	17.595	6.336	-2.973	12.902	17.149	6.497
1998	15.085	-6.468	-4.580	-7.827	-8.857	13.999	9.306
1999	13.824	6.334	-1.566	1.822	8.188	17.689	10.735
2000	15.509	31.123	15.214	17.371	21.597	-1.885	15.727
2001	-3.383	-11.532	-5.188	-5.228	10.385	-0.830	-3.641
2002	0.796	21.837	9.798	17.419	12.216	7.773	3.504
2003	-12.801	1.470	-9.252	-4.458	-1.875	-9.491	-11.306
2004	27.426	-2.360	20.914	3.539	18.571	1.050	23.618
2005	5.068	22.436	4.830	2.161	9.342	1.452	4.948
2006	2.623	14.182	5.167	5.105	7.413	16.102	3.328
2007	3.020	19.256	6.420	4.599	17.825	12.015	3.947
2008	7.281	-11.879	3.948	5.876	18.307	10.942	6.779
μ (평균 증가율)	6.014	8.912	4.879	3.178	10.621	6.007	5.568
<i>Max</i>	27.426	31.123	20.914	17.419	21.597	17.689	23.618
<i>Min</i>	-12.801	-11.879	-9.252	-7.827	-8.857	-9.491	-11.306
σ	9.970	13.456	8.171	7.384	8.124	9.104	8.649

이것은 향후 오세아니아·중동지역이 새로운 인바운드 잠재관광시장으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특이한 저해요인들의 영향변수를 제외하고는 평균증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인바운드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러나 평균수익률의 *Max-Min* 범위가 대부분 나타나고 특히 전체 평균편차(8.649%) 보다 높은 지역이 중동(13.456%), 아시아(9.970%), 아프리카(9.104%) 순이며 특히 중동지역은 연

간수익 증가율보다 표준편차(σ)인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중동지역 인바운드 관광시장은 위험(표준편차)과 수익(평균)의 상충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오세아니아지역은 수익률은 매우 높게 증가하는 반면 표준편차는 전체 값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어 수익과 위험의 상승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수익성지표에 의한 위험성평가

일반적으로 국제관광정책수립에 있어 수요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바운드 시장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관광수용국은 장기적인 정책목표를 두고 안정된 관광산업 발전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인바운드 수요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바운드 수요의 변동성 증대는 거시적인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지방화, 분권화 시대의 지방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관광수요의 변동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주요 인바운드 시장의 수요 감소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광수지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2단계 분석은 국제관광수요 측면에서의 분산측정을 통한 위험성평가과정으로서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수익성지표에 의한 위험성 평가계수를 산출하였다. 수익성지표인 평균 입국자수(A)는 1995년부터 2008년까지 각 대륙별 인바운드 시장의 수익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대륙별 인바운드 시장 가운데에 아시아가 3,724,977명으로 연간 평균 입국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아메리카(557,008명), 유럽(468,932명) 순이며 중동이 37,629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수익성지표에 대응하여 위험을 나타내는 분산(σ^2)의 정도는 표준편차(σ)를 통해 파악함으로써 위험성 평가의 산출기초가 된다. 또한 입국자수가 가장 많은 아시아 지역의 경우 위험분산(836,508)도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분산이 가장 낮은 지역은 아프리카(3,744)로 나타나 수익성지표가 높을수록 평균 입국자 수의 분산(321852.74)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륙별 인바운드 시장의 표준편차에 의한 위험척도는 단순히 해당 대륙내의 평균에서 벗어난 평균편차를 의미하고 있어 각 대륙간 상호비교에 의한 안정성정도를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표준편차에 수익성지표를 나눈 변동계수(CV : coefficient of variance)는 수익성지표 즉, 연간 평균 입국자 수 대비 변동성을 대륙별로 비교할 수 있으며 이

는 곧, 위험성지표의 안정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한다. 따라서 위험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유럽(0.14)으로 나타났으며, 아메리카(0.18), 아프리카(0.21), 아시아(0.22), 중동(0.34), 오세아니아(0.40)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대륙별 위험 및 평가계수 행렬

	아시아	중동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아시아	1.0000	0.9041	0.9247	0.8602	0.9147	0.9163
중동	0.9041	1.0000	0.9582	0.9321	0.9498	0.8780
아메리카	0.9247	0.9582	1.0000	0.9398	0.9744	0.8582
유럽	0.8602	0.9321	0.9398	1.0000	0.9566	0.8126
오세아니아	0.9147	0.9498	0.9744	0.9566	1.0000	0.8962
아프리카	0.9163	0.8780	0.8582	0.8126	0.8962	1.0000
평균연간 입국자수(A)	3,724,977	37,629.14	557,008.14	468,932.21	67,336.50	18,142.14
위험(σ^2)	836,508.90	12,659.04	99,174.69	64,245.68	26,702.48	3,744.17
분산계수* (CV)	0.22	0.34	0.18	0.14	0.40	0.21
위험조정평균 입국자수**	4.45	2.97	5.62	7.30	2.52	4.85

주) *, ** : 단위가 비율(ratio)임

특히 오세아니아 지역의 경우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평균증가율(10.621)이 가장 높아 잠재시장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도 상대적 위험도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관점으로 수익성지표를 표준편차로 나눈 위험조정 평균 입국자 수 역시 표준화 값을 산출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인 수익성정도를 파악하게 된다. 따라서 〈표 3〉에 제시된 결과 값을 살펴보면 유럽(7.30), 아메리카(5.62), 아프리카(4.85), 아시아(4.45), 중동(2.97), 오세아니아(2.53) 순으로 나타나 위험도와 수익성은 당연히 상충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식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각 대륙별 공분산에 의한 상관계수가 모두 양(+)의 상관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음(-)의 상관이나 절대 값이 비교적 작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우 인바운드 시장의 믹스를 통해 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각 대륙별 인바운드 시장 간의 상관계수가 $-1(\rho_{ij} = -1)$ 이 아닌 이상에는 특정 지역의 위험성 정도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시장믹스 구성은 현실

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인바운드 시장의 구성 비율(A_i)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국제관광정책의 관점에서 인바운드 시장 전체의 위험을 일정 수준까지는 감소시킬 수 있으나 완전한 분산의 위험도를 줄일 수 없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3. 최적 믹스구성에 의한 위험관리

인바운드 수익성지표에 의한 위험성을 평가한 1, 2단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각 대륙별 수요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3단계는 최적의 인바운드 시장 믹스(inbound market mix)를 구성하였다. 이는 관광수익성의 위험(분산도)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식투자자가 투자수익률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이것은 특정한 대륙의 인바운드 시장의 영향도 평가에 직접 응용함으로써 최적의 시장믹스 구성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각 대륙별 위험을 최소화 한 상태에서의 포트폴리오 믹스가 구성됨으로써 국제관광 수지를 개선하는 데에 절대적인 공헌을 하게 된다. 또한 안정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륙별 인바운드 축진을 위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식 3)에서 제시한 가중치별 최적믹스 구성의 조건 하에 위험을 통제된 상태에서 최대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식 4)의 공식에 부합되는 함수를 만족시키는 시장 믹스를 구성함으로써 국제관광정책의 대응지표를 산출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6개 대륙의 인바운드 시장의 포트폴리오 믹스는 $C_{p_{f1}}$ 부터 $C_{p_{f8}}$ 까지 총 8개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에 최소분산이며 최대수익을 나타내는 시장믹스는 $C_{p_{f4}}$ 로 나타났다. 즉, 이것은 각 대륙별 위험-수익의 지표를 고려한 8개의 구성 가능한 믹스 가운데에 최적의 인바운드 시장 믹스가 $C_{p_{f4}}$ 로 드러남으로써 국제 관광정책의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대륙별 수익모델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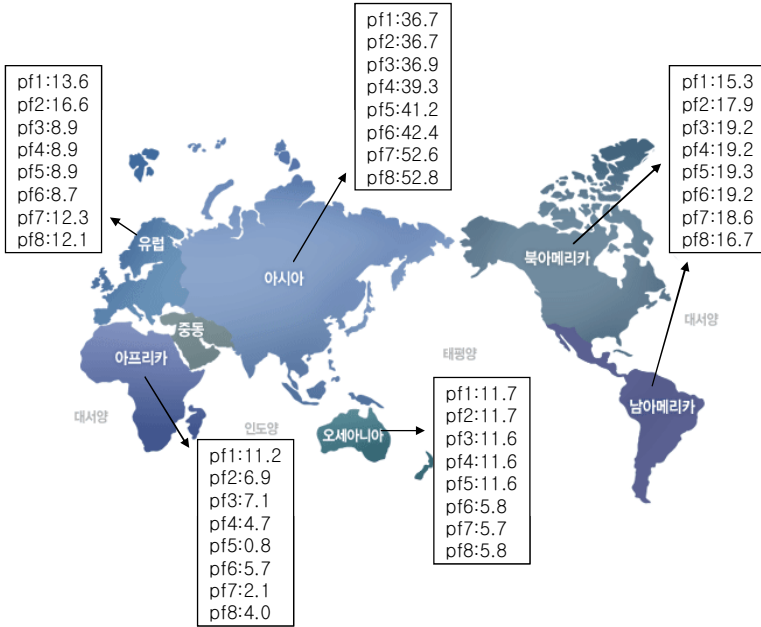
〈표 4〉 대륙별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

(단위: %)

	아시아	중동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위험 (변동성, σ)
Cp_{f1}	36.7	11.5	15.3	13.6	11.7	11.2	43.17
Cp_{f2}	36.7	10.2	17.9	16.6	11.7	6.9	37.24
Cp_{f3}	36.9	16.3	19.2	8.9	11.6	7.1	36.52
Cp_{f4}	39.3	16.3	19.2	8.9	11.6	4.7	35.63
Cp_{f5}	41.2	18.2	19.3	8.9	11.6	0.8	37.24
Cp_{f6}	42.4	18.2	19.2	8.7	5.8	5.7	43.27
Cp_{f7}	52.6	8.7	18.6	12.3	5.7	2.1	53.69
Cp_{f8}	52.8	8.6	16.7	12.1	5.8	4.0	66.84
상한선	52.8	8.6	19.3	8.7	5.8	0.8	
하한선	36.7	18.2	15.3	13.6	11.7	11.2	

그러나 이러한 포트폴리오 믹스를 구성함에 있어 대상을 증가시킴에 따라 감소하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과 포트폴리오의 구성 국가수를 증가시키더라도 감소하지 않는 위험인 체계적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즉, 현재 6개 대륙별로 산출된 구성은 향후 각 국가별로 세부적인 위험을 평가할 경우 비체계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체계적 위험은 대륙별로 국한된 위험인 관계로 이를 분산가능위험 또는 대륙별 고유위험이 되는 것이다. 체계적 위험의 경우는 각 대륙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위험으로, 9·11테러, 사스(SARS), 국제금융위기 등 국제관광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다. 따라서 〈표 4〉의 결과 값은 이러한 영향요인을 충분히 고려한 분석 결과 값이 제시되었다. 비록 최적의 믹스라 할지라도 획기적인 국제관광정책을 구사해야 되고 다소 공격적인 대응전략 구사가 불가피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위험-고수익(high risk-high return)의 믹스를 구성해야 한다. 이런 경우 인바운드 시장 믹스'는 Cp_{f8} 선택의 대안선택이 바람직한 것이다. 〈표 4〉에서 대륙별로 구성된 비율에서 최적의 구성인 Cp_{f4} 의 경우 아시아(39.3%), 중동(16.3%), 아메리카(19.2%), 유럽(8.9%), 오세아니아(11.6%), 아프리카(4.7%)의 구성 비율을 가지게 되며 이때의 분산도가 35.63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2개 대륙은 상대적 비중 증가, 유럽과 아프리카는 감소시켜야 하며 아시아, 중동 유럽지역은 약간 감소시키게 된다. Cp_{f4} 는 인바운드 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최적 인바운드 관광시장 믹스로 평균입국자 수에 가중치를 부여한 기대 연간 입국자 수도 산출할 수 있어 미래의 예상 수익지표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그림 1>에 제시된 결과치는 대륙별로 각 믹스에 교차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보다 심층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는 선택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1> 대륙별 포트폴리오 가중치(A_i) 구성 요소

그러나 관광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정부나 유관기관의 정책결정자의 관점에서서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8개의 믹스 구성 가운데에 위험선호도(risk preference)에 따라 원하는 믹스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각 대륙별 선택된 관광시장에 대한 국제관광마케팅 측면에서 최적의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광정책의사결정자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된다.

V. 결론 및 과제

그 동안 한국의 국제관광은 거시 경제적 차원에서 국제수지를 구조적으로 개선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막대한 국가자본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심각한 역조현상을 가져오고 있어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본 논제에서 제시한 국제관광의 저해요인인 테러리즘이나 정책적 제약요소를 충분히 검토하여 인바운드 시장 즉, 국제관광 수익성과 위험성을 사전 평가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바운드 시장의 추세에 노출되는 위험의 지표인 변동성을 제대로 관리하고 효율적 최적의 포트폴리오 평가모형 구성하여 위험관리를 제대로 할 경우, 국제관광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관광정책의 우선순위결정 및 집중 관리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실용 자료도 아울러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대상인 6개 대륙의 인바운드 시장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8개의 믹스를 도출하였으며 각 대륙별 가중치도 산출하였다. 이러한 결과 치는 특히 국가별 상대적인 의사결정의 지표가 산출되고 세부적인 선택적 관광정책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효용성과 과학적인 논리성을 입증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자국의 국제관광 수지를 개선하고자 국가적 차원에서 앞다투어 국제관광을 육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의 국제관광부문의 발전에 대한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선형적 가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중요한 논점은 한국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은 각 대륙 별 국제관광 저해요인의 위험성평가모형을 새롭게 정립함과 동시에 사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증적 연구를 시도하여 그 분석결과를 체계화시킴으로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행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특히 본 연구결과를 공유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기업경영에 이러한 실행평가모형의 실용성과 그 효용성 인식시킴으로써 한국의 국제관광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본 연구결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산투자의 효율성과 과학성으로 인해 한국관광이 안고 있는 관광수지적자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본 연구의 궁극적인 의의는 그 동안 분산운영 되어온 국제관광 분야의 정책적 의지에 대해 위험성관리가 본격적으로 실현되고 투자예산의 집중화가 제대로 이루어 질 경우, 한국의 국제관광 발전에 저해되는 치명적인 제약조건들이 근본적

으로 해결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국제관광 발전을 위한 연구모형개발 및 최적의 저해요인 평가변수를 탐색하기 위한 후속연구에도 본 연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륙별 연구과제가 더욱 구체적으로 완성되고 보다 정밀한 국제관광 의사결정을 위한 평가결과가 도출된다면, 그동안의 한국 국제관광 운영상의 구조적인 미비점을 보완해 줄 것이다. 또한 새로운 저해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 및 국제관광 선진화에도 기여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지방문화관광의 국제화 전략에도 직접 응용가능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태구(2003). 『국제경영학』. 서울: 박영사.
- 김기태(2005). 관광산업의 최적 portfolio 구성을 위한 위험성 평가, 경주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김도영(2006). 여행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웹 여행정보 시스템 속성평가에 관한연구. 『문화관광연구』, 8(1), 183-203.
- 김병문·김현지(2002). 『국제관광론』. 서울: 백산출판사.
- 김사현(2006). 『국제관광론』. 서울: 백산출판사.
- 노예석 외(2007). The U.S Hospitality And Tourism Industry: After September 11th And Future Challenges. 『관광연구』, 22(1), 97-114.
- 문화관광부(2007). 2006년 『문화정책백서』.
- 변우희(1998). 울릉권 관광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연구. 『관광레저연구』, 10(1), 107-134.
- _____(2006). 국제문화관광이벤트의 관광자원적 가치평가. 『관광학연구』, 30(3), 247-265.
- _____(2008). 외식산업의 경영전략 성과측정에 의한 블루오션 대응전략. 『관광학연구』, 32(5), 9-30.
- 안종윤(1997). 『관광정책론』. 서울: 박영사.
- 어윤대 외(2004). 『국제경영』. 서울: 학현사.
- 이장춘(2004). 『관광정책론』. 서울: 대왕사.
- 조민호(2000). 한국관광호텔수요 영향요인 분석: 미국과 일본의 비교연구. 『호텔관광연구』, 9(2), 109-121.
- 최승국·오수경(2004). 일반여행업체의 Inbound 상품현황 및 특성에 관한 연구. 『관광정책학연구』, 10(2), 109-128.

- 한국관광공사(2007). 「2006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 Aboudi, R., & Thon, D.(1995). Second-degree stochastic dominance decisions and random initial wealth with applications to the economics of insuranc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62, 30-49.
- Alana, L.A. G.(2005). Modelling international month arrivals using seasonal univariate long-memory processes. *Tourism Management*, 26(6), 867-878.
- Artzner, P., Delbaen, F., Elber, J. M., & Heath, D.(1997). Thinking coherently. *Risk Management*, 10, 68-71.
- Ballester, M. M.(2004). Labor costs and investments in human capital, *SSRN working paper*.
- Barber, B. M., & John D. L.(1997). Detecting long-run abnormal stock returns: the empirical power and specification of test statistic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43, 341-372.
- Buckley, J. J., Eslami, E., & Feuring, T.(2002). *Fuzzy mathematics in economics and engineering* Physica-Verlag.
- Crouch, G. I.(1992). Effect of income and price on international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3), 643-644.
- _____ (1996). Demand elasticities in international marketing-A meta-analysis application to tourism.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36, 117-136.
- Ekern. S.(1981). Time dominance efficiency analysis. *Journal of Finance*, 36, 1023-1034.
- Embrechts, P., S. Resuick & Samoroduitsky, G.(1999). Extreme value theory as a risk management tool. *North American Actuarial Journal*, 3(2), 30-41.
- Huang, C.(2002). An application of calculated fuzzy risk. *Information Science* 142, 37-56.
- Kim. J. H., & Moosa. I. A.(2005). Forecasting international tourist flows to Australia: a comparison between the direct and indirect methods. *Tourism Management*, 26(1), 69-78.
- Kurendran, N., & King, M. L.(1997). Forecasting international tourist flows using error-correction and time-series models.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casting* 13, 319-327.
- Jang, S. C., Chen, M. H.(2008). Financial portfolio approach to optimal

- tourist market mixes. *Tourism Management*, 29(3), 761-770.
- Kravis, I., Heston, A., & Summers, R.(1982). *World Product and Income: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Real Gross Product*.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 Kennedy, V.(1998). Risk management in the Irish tourism industry: the contribution of a portfolio investment approach. *Tourism Management*, 119-126.
- Markowitz, H. M.(1952). Portfolio selection. *Journal of Finance*, 7, 77-91.
- Philemon, O.(2006). International tourism marketing in Africa: an assessment of price competitiveness using the purchasing power parities of the ICP.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16(1), 3-17.
- Pflug, G. C.(2000). *Some remarks on the value-at-risk and the conditional risk, probabilistic constrained optimization: methodology and applications*. S. Uryasev, Kluwer Academic Publishers, 272-281.
- Statman, M.(1987). How many stocks make a diversified portfolio?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Sep. 353-364.

2009년 4월 1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09년 6월 16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일 통보
2009년 6월 21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 畢